

차이전평(蔡振豐)의 『다산의 사서학 :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를 읽고*

Jung Yak-Yong(Dasan)'s Study of the Four Books, focusing on
East Asian Perspective, by Tsai Chen-Feng

방상근 _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

Bang, Sang-Keun _The King Sejong institute for Leadership & Statecraft, Yeju Institute of Technology

I. 주희(朱熹)의 사서학(四書學)과 동아시아

역자(譯者)가 후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산의 사서학: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는 대만대학 중국문화과 교수 차이전평(蔡振豐) 선생의 저작인 『朝鮮儒者丁若鏞의四書學』(대만대학출판부, 2010)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사서학(四書學)이란 무엇인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희(朱熹)의 사서학이 중국·조선·일본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정약용의 사서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체제교학이었던 주자학은 사서라는 텍스트를 통해 그 이론을 구축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사서학은 사서를 하나의 완전한 이론체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동아시아 3국이 주자학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차이와 특징을 보여 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산의 사서학을 분석한 이 책은 다산의 학문적 경향뿐만 아니라, 조선주자학의 이론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희를 통해서 사서가 동아시아 지식인 계층의 보편적인 텍스트로 받아들여진 이후, 사서의 내용은 불가피하게 정치담론의 기초이자 문명개념의 근거가

* 차이전평, 김중섭·김호 옮김, 『다산의 사서학: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너머북스, 2015) 서평.

되어왔다. 그런데 주희의 사서학은 당시 그가 처한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사상체계이므로, 사회적 배경과 문제를 달리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서학에서 제시된 사상체계가 시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체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중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밖의 조선과 일본에서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주희의 사서학을 비판했던 세력으로 송대에 진량(陳亮)과 섭적(葉適), 그리고 명대 이후 양명심학(陽明心學)의 추종자들과 청대의 문헌고증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논리를 통해 사서학에 반대했다. 하나는 문헌학의 측면에서 사서의 정전성(正典性)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전(사서)의 해석과 실천의 효용의 측면에서 사서학에 비판하는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서학을 비판한 세력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 일본의 고학파(古學派)가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 명(明)·청(淸) 교체 이후 서학을 흡수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받아들였던 조선의 실학파(實學派)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주희의 사서학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경서(육경)의 고의(古義)를 통해 공맹의 도를 탐구하며 ‘탈주자 사서학’을 시도했던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유학과는 달리, 조선에서 사서학의 지위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학자들 간의 독특한 토론이나 견해가 있었지만 모두 수정의 차원이고 주자학이 권위를 뒤흔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 시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산의 사서학이 일본의 고학파와 달리 사서의 정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천성을 상실해가는 조선의 주자학을 바로잡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주자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면한 한계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문과 학파를 벗어나서 경제실용의 학풍을 보여주는 특색 있는 사서학의 발전을 이루어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II. 책의 내용과 성과

서장에서 저자는 정약용의 사서학에 관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① 정약용과 주희는 어떤 학술적 연관성이 있는가, ② 정약용의 사서 해석은 『논어』·『맹자』·『대학』·『중용』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해석의 틀을 구성하였는가, ③ 정약용의 사서 해석 중에서 인성론은 서학 혹은 서교의 입장인가? 그가 이야기한 상제(上帝)는 종교적인 의미의 천주(天主)로 해석할 수 있는가? ④ 정약용의 사서 해석을 동아시아 유학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의 사상에는 주목할 만한 근대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책의 본문은 서장에서 제기한 이러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정약용의 사서 주해 원전을 분석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사서학의 방법과 개념, 사서학의 변화와 동아시아 학술에서 정약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1장(문제와 방법)에 이어서, 사서의 해석을 둘러싼 주희와 정약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2장, 그리고 정약용의 인성론과 수사학(洙泗學)이 주자학 및 서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하는 3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저자는 주자와 정약용의 사서해석에 대한 기본적 입장 차이를 ‘의리(義理) 지향’의 체계와 ‘의의(意義) 지향’의 체계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정약용의 독특한 심성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기호설(性嗜好說)과 서학의 영향으로 이해되었던 상제론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사서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仁), 심(心), 성(性), 천(天)을 중심으로 정약용의 사서 해석의 이론적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4장까지가 정약용의 사서학에 대한 기초적 논의와 저자의 충실한 해설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장에서는 다산의 사서학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해석이 전개되고 있다. 5장에서 저자는 ‘주체성’과 ‘상호주체성’이라는 분석틀을 이용하여 정약용의 문질론(文質論)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중용』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약용과 일본 고학파들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7장에서는 정약용의 『대학』 해석을 통해서 그의 ‘사서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 전체에

걸쳐서 서장에서 제기한 문제에 천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저자는 다음의 세 가지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약용의 사서학을 ‘동아시아의 유학’이라는 넓은 시야에서 분석하여 다산의 사서해석의 특별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서(四書)에 관한 중국학자의 해석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학파를 대표하는 이토 진사이나 오규 소라이의 해석도 참고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과 비교되는 다산의 독특한 사서학의 체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산은 일본 고학파 학자들의 저술을 많이 인용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자학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반(反)주자학’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고학파들의 경우와는 달리 주자학에 대한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정약용이 비록 주자의 이(理)와 기(氣)의 구도를 반대했지만, 주자의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구분은 반대하지 않았고, 유학사에서 사서(四書)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자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그의 사서학이 ‘반주자학’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공맹(孔孟)시대의 원시 유학으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수사학(洙泗學)을 통해 주자학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포스트 주자학’이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한국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다산과 천주교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다산이 서학(西學)과 서교(西敎)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수사학’은 원시 유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천주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천주실의』를 비롯한 고전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 다산은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저술에서 나타나는 천(天)이나 상제(上帝) 등의 개념이 천주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고, 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을 계기로, 그가 비록 서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에 서학과는 다른 ‘사서학’을 구축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다산과 천주교(학)와의 관계를 이 책의 저자만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저술이나 논문은 한국학자의 글 가운데에도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선한 지적 자극이 되었다.

셋째 다산의 사상을 동아시아가 ‘전통’에서 ‘근대’로 전화하는 계보 안에서 고찰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사상사를 연구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학설을 참고하여 다산의 사서학이 근대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주자학의 자연(自然)에서 탈주자학의 작위(作爲)로의 이행에서 근대의식의 기초를 찾는 마루야마 학설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산의 유학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분석틀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이전평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명제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다산 사상의 근대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다산의 천인관(天人觀)은 천명(天命)이 아래로 관철하는 식이 아니므로 “천인(天人)이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 ② 다산은 맹자의 심성론을 주장하지만 자연의 선(善)이 아닌 도덕적 실천(行事)에서 비롯하는 선을 강조한다는 점, ③ 다산은 주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호주체성도 강조하여 ‘예약형장’론의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계약론’의 초보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서구적 개념과 분석틀(상호주체성이나 사회계약론 등)이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의 인성론과 선악론, 그리고 정치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적실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다산의 사서학에 대한 보다 풍성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인심(仁心), 인성(人性), 그리고 문질(文質)

이 책의 핵심적 부분은 아마도 <주희와 정약용, 사서 해석의 차이>를 설명하는 2장과 <정약용의 인성론과 수사학, 주자학 및 서학의 차이>를 논하는 3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장들에서 저자는 주희와 정약용의 사서 해석을 ‘진리와 의미’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비교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주희는 ‘진리’(천리)를 핵심으로 하여 어떻게 진리를 이해하는가, 혹은 어떤 내용을 진리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입장이다. 저자는 이러한 주희의 해석을 ‘의리(義理) 지향의 체계’라고 명명한다. 사서(경전)에 나오는 성인의 뜻은 객관적인 이치(天理)로 간주되며, 따라서 사서의 해석은 객관적 도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해석된 의미는 최종적으로 의리(진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해석 체계라는 것이다.

반면에 정약용은 ‘의마’를 독립적인 표적으로 삼아 의미 소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탐구한 뒤 ‘의마’에 ‘진리’의 개념을 연결하는 입장(방법)이다. 저자는 이러한 다산의 해석을 ‘의의 지향의 체계’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저자는 다산이 『논어』 등의 경전을 읽을 때 “그 훈계가 대부분 그 당시의 일에 대한 것이고 지금은 고증하기 어렵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사서의 해석은 문외(文義)외에도 시대적 요소와 배경정황도 고려해야하며, 따라서 문장 해석의 기준은 진리로서의 천리가 아니라 생활 세계를 기초로 하는 반성과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산의 해석경향에 흐르는 사고방식은 이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것에 반대하면서 각 경전의 다른 표현을 통해 현실생활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주희와 정약용의 사서 해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논어』에서 묘사되는 관중(管仲)의 인심(仁心)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에서 주희는 인심을 본심의 완전한 도덕적 상태로 보았으며, 정약용은 인심을 본심의 발산과 응용으로 보았다. 주희는 인심을 ‘본심의 완전한 도덕적 상태’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추호의 공리심만 있어서 인심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중의 공(功)은 천하에 미치지만 명명덕(明明德)의 수양에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공은 인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중에게는 인심은 없고 인공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약용은 관중이 공리가 섞여 있는 마음으로 행동했으나 그 행동에 동정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천하를 안정시킨 것은 인심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즉 정약용은 본심이 완전한 도덕적 상태에 있어서야 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심이 있다고 반드시 인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심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심에 관한 주자와 정약용의 차이는, 인성(人性)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어진다. 정약용에게 있어서 성(性)은 주자가 말하는 천리(天理)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기호(嗜好)이며, 이 ‘기호로서의 성’이야말로 도덕 행위의 근원이 되며 사람이 이 기호를 따르지 않을 때 악으로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인성에 관한 논의의 중심을 ‘성(性) 그 자체’에 두지 않고, 마음의 기호에 따라서 의한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같은 ‘주체의 자주권(선택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자와 차이를 보인다. 다만 그가 맹자의 성선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선한 곳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자학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산은 『논어』 「용야편」에 나오는 문질론(文質論)에 있어서도 주희와는 다른 주장을 제시한다. 그는 질(質)을 ‘덕행으로 근본을 다지는 것’으로, 문(文)을 ‘예약으로 꾸미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예약형정)을 통해서 ‘질’(효제충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래 공자는 “질(본바탕)이 문(아름다운 외관)을 이기면 촌스럽고(野), 문이 질을 이기면 걸치레만 잘하니(史), 문과 질이 적당히 배합된 뒤에야 군자”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주희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학자는 마땅히 유여(有餘)한 것은 털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야 하니, 덕(德)을 이룸에 이른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여 문보다는 질에 보다 방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이 질보다 문에 방점을 둔 이유와 관련하여, 저자는 당시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을 통한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정약용은 문질에 있어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비교하고, 정치를 할 때는 먼저 예약제도를 세워 백성이 따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다음 점차 충신의 덕행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백성에게 따를 수 있는 예약제도가 없다면 충신의 행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여 충신의 성(性) 혹은 충신의 덕(德)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약용은 생각에 대해서 조선의 특색을 지닌 문질론이라고 평가하는 점이 흥미롭다.

IV. 맺음말

이 책의 추천사를 썼던 황진제(대만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원 원장)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에서 조선유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특히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적다. 중화권 국가에서 동아시아 사석학 연구성과는 대체로 중국의 주자학에 대한 저술이 가장 많고, 도쿠가와 일본의 사서학과 고학파들 관련 연구가 그 다음이며, 조선학자나 조선의 주자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제시한 다산의 사서학에 대한 이해와 분석수준은 한국학계의 연구수준과 비교해볼 때 결코 낮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중화권에서 조선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계에서 중화권의 학문경향과 연구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책을 읽고 난 후, 향후에도 중화권에서 조선의 유학에 대한 의미 있는 저작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한국학계에 큰 지적 자극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타자’의 시각에서 묘사된 다산 정약용은 모습은 이제까지 익숙하게 여겨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조선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이룰 수 없는 꿈을 글로써 표현한 비운의 이론가라기보다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주자학을 바라보면서 조선유학을 객관화하고 중국과 일본의 유학경향이 지닌 문제를 비판하는 안목을 지닌 자신만만하고 경세가였다. 이 책에서는 당대의 선진학문을 흡수하면서도 유학의 입장에서 주자학을 비판했던 다산의 야심찬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후학들에게 반성과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일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